

“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
”

치료의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질환의 중한 정도와 병변의 범위에 따라 치료 약제를 적절하게 선택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치료제에 대한 반응과 치료 목표에 도달했는지 평가를 위해서 증상 소실 유무와 함께 혈액 검사, 대변 검사, 대장내시경 등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치료제에 따른 부작용이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에 없던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를 담당하는 주치의와 상의하고 필요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에 반응 여부나 약제의 부작용에 대한 평가는 환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의료진과 긴밀하게 상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의 초석입니다.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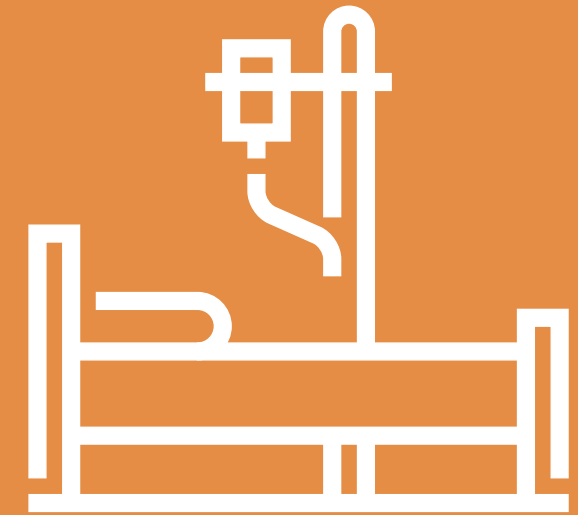
저 자
대한장연구학회

IL, interleukin; JAK, janus kinase; MACE, major adverse cardiovascular events; SIP, Sphingosine-1-Phosphate.

Copyright © 2026 by kasid All Rights Reserved
본 정보지의 소유권은 대한장연구학회에 있으며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궤양성 대장염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

Ulcerative Colitis Guidebook





“ 치료의 목표 ”

궤양성 대장염의 치료 목표는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설사, 대변을 참기 힘든 절박증, 혈변 등의 증상이 없어지고 복통이나 다른 불편감이 없는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최근에는 대장의 염증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증상 소실은 물론이고 대장 점막 치유를 통해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치료로 대장의 기능을 유지하고 장 손상을 최소화하면 염증과 관련된 수술률과 대장암의 발생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내과적 치료 ”

궤양성 대장염의 주된 약물 치료는 아미노살리실산, 스테로이드, 면역조절제, 생물학 제제, 소분자 약제 등이 있으며, 경구 복용, 좌약 또는 관장, 정맥 또는 피하 주사의 형태로 사용됩니다.

약제의 선택은 질병의 중한 정도(경도·중등도·중증)와 침범 부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그림 참조).



① 5-아미노살리실산 (5-ASA)

경도-중등도 궤양성 대장염의 관해 유도 및 관해 유지에 사용됩니다.

약제는 설파살라진(사라조피린, 조피린, 살루딘)과 메살라민(살로파크, 아사콜, 펜타사, 콜라잘, 메자반트) 등이 있고 약제에 따라 효과가 차이하지 않습니다. 경구와 국소(좌약, 관장)의 병합 요법이 경구 혹은 국소 단일 요법에 비해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복통, 구역, 설사와 같은 위장관 부작용과 궤장염, 드물게 콩팥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② 스테로이드

아미노살리실산에 반응이 없는 경우 사용하며, 외래에서 처방되는 약제로는 프레드니솔론(소론도), 메틸프레드니솔론(메치론), 부데소니드(엔터코트), 베클로메타손(클리퍼) 등이 있습니다. 질병이 심각한 경우에는 입원하여 정맥주사로 투여받게 됩니다.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또는 반복해서 사용하면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드름, 둥근 얼굴, 부종, 수면 및 기분 변화, 소화불량, 혈당 상승,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백내장, 골다공증, 대퇴골 과사, 근육병증, 성장 장애 등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로이드는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증상이 호전되면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테로이드를 갑자기 중단하는 경우에는 부신기능부전, 근육통, 관절통, 전신 쇠약감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여 서서히 감량해야 합니다.

한편, 장에서 주로 작용하는 국소 스테로이드제(예: 클리퍼)는 전신 스테로이드에 비해 부작용이 적어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으며, 아미노살리실산 제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면역조절제

면역조절제에는 아자티오프린(이뮤란, 아자프린, 이무테라, 아자비오)과 메르캅토피린(푸리네톤, 멜캅토, 푸리네톨)이 포함됩니다.

면역조절제는 스테로이드를 중단하기 어려운 경우(스테로이드 의존성), 스테로이드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는 경우(스테로이드 불응성), 또는 부작용으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또한 스테로이드나 사이클로스포린으로 관해가 유도된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관해를 유지하기 위한 치료로 사용됩니다.

부작용은 사용 초기에 오심, 두통 등이 심하거나 백혈구 감소증, 간 손상, 감염, 탈모, 궤장염, 그리고 드물게 악성 종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백혈구 감소증이 가장 중요한 부작용인데,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